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3>그 누구라도 입증할 때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해도 중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헛된 삶이니, 목숨을 거둘 때 금생의 나쁜 업만 지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복을 짓는 것은 삼생(三生)의 원수나 마찬가지로 삼생(三生)의 원수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생에서 어리석은 복만 짓는다고 견성(見性)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생에서는 전생에 지어 놓은 어리석은 복을 받아낸다고 공부하지 않아 그저 업(業)만 짓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생에서는 전생에 어리석은 복만 받아쓰고 수행을 하지 않았기에 몸을 떠날 때 손발같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받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은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선가귀감> 73장에서 말한다.

본디 성품은 여여(如如)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이 몸이 죽을 때에도 그 성품은 여여(如如)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맑고 고요하고 오롯하여서 마음과 경계가 하나이다. 오직 이와 같이 보고서 단숨에 바로 깨쳐 삼세의 인과에 얽매이지 않아야 세간을 초월하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을 만나도 그 경계에 집착하여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아도 그 경계에 놀라지 않으므로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다. 오직 스스로 무심하여 법계와 하나가 되어 갈아질 뿐이니 이것이 아탈로 바로 공부의 뼈대라고 할 수 있

실체없는 몸에 집착하여 온갖 괴로움 일어나 마음 다해 수행한다면 반야의 씨앗 심는 것

다. 살면서 지은 업이 씨앗이 되어 죽을 때 이르러 그 과보를 받게 되니, 도를 닦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점을 눈여겨 보아야만 한다.

'오온'과 '사대'로 이루어진 중생의 몸은 인연의 조건이 갖추어져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인데 중생들은 이것에 집착하여 온갖 번뇌를 일으킨다. 이 집착이 중생을 육도에 윤회하게 하는 '생사의 뿌리'이다. 덧없이 무너질 몸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이것들이 마구 나기 되니 중생들의 온갖 괴로움이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몸과 일음일이 마음 작용은 무상

(無常)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여 벗어나지를 못하므로, <선가귀감>에서 수행자들은 그 실체가 '공성(空性)'임을 통찰하라고 한다. 우리들이 그 자리가 공(空)임을 알 때 늘 여여(如如)하여 변하지 않는 본디 성품인 참마음이 드러난다. 참마음은 지극히 맑고 고요하고 오롯하여서 마음과 경계가 하나이다. 인과를 벗어나 세간을 초월한 자유인으로서 모든 집착을 떠나 무심해질 때에 부처님 세상이 법계 그 자체가 된다.

마음 닦는 공부는 헛됨이 없다. 마음을 다하여 수행한다면 설사 금생에 알지 못하더라도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목숨을 마칠 때도 업의 분별에 끌려 그 어떤 악취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몸을 바꾸어서 다시 태어날 때에도 무명번뇌가 나를 어둠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부를 잘 살피고 살펴야 한다. 무상한 세월이 빠르기에 생사를 밝히는 일이 더 큰

이 젊을 적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입신출세(立身出世)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고 싶은 마음에 세속의 부와 명예에 집착하여 바쁘게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진 늙고마에 이르러서야 두려운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게 된다는 뜻이다. 때는 많이 늦었지만, 백발이 성성하여 기력이 없는 늙고마이라도 정신 차려 최후의 한 생각을 바로 가짐으로써 영원한 빛이요 생명인 극락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을 보아야 할 것이다. 서산 스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好向此時明自己 百年光陰轉頭非.

이런 때에 눈을 떠서 자신의 마음을 애써 밝히려야 하니 백 년 세월도 몸을 바꿀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느니라.

중생의 삶이란 부처님의 품을 벗어나 나그네 인생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중생의 죽음이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빛이요 생명인 아미타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는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오온(五蘊)'과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중생의 몸과 마음 자체가 인연의 조건이 갖추어져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가 없는 '공(空)'임을 통찰해야 한다. 덧없이 사라질 부질없는 중생의 인연을 벗어나 수행자가 공성(空性)을 깨달아 들어간 부처님의 세상을 아부(阿父) 스님이 <금강경>을 풀이한 계승에서 말한다.

自少來來情遠度 幾迴衡陽渡瀟湘
一朝踏踏家鄉路 始覺道中日月長.

어릴 적부터 줄곧 나그네 노릇을 하면서 몇 번이나 산을 돌고 큰 강을 건넜던가? 어느 날 아침에 고향 길을 밟고 보니 부질없이 객지에서 긴 세월을 보냈구나.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5>



비유

문학에서 비유(譬喩)는 이해를 빨리 하게 하고 표현에 멋을 내기 위하여 쓰는 기법으로, 직유와 은유로 나뉜다. 직유는 직접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처럼, 같이, 비슷하다' 등의 말이 매체로 쓰인다. 이에 비하여 은유는 사물의 본질을 숨기고 다만 겉으로 비유하는 방법이다.

현대 상담심리에서도 비유가 많이 쓰인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원하거나,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감정·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화의 도구로서 비유는 인지와 정서의

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 불교에서 비유란 부처님 교설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실체나 우화 등을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불경을 조직하는 구성 요소를 문체와 기술(記述) 형식,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12분교(分敎) 가운데 하나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매우 즐겨 썼다. '비유로서 말하라'고 하시며 시의적절하면서도 상담상황에 꼭 들어맞는 적절한 비유를 동원해 내담자의 심금을 움직이고 이해와 공감, 변화 및 성장을 대하는 도구로서 비유는 인지와 정서의

부처님은 시의적절한 비유로 내담자 심금 움직여 전생·금생사건·우화 등 모아 엮은 비유경 여러권

세계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감정의 영역 속에서 사고과정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비유는 무의식의 영역 속에 있다가 행동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비유는 기존의 틀을 깨고 다른 틀을 찾아내며, 실재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비유는 감정과 지성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단순히 말하거나 들을 뿐 아니라 언어를 '경험하게' 한다. 상담에서 직접 다루면 반발이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힘든 감정도 비유를 통해 간접 표현을 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일수록 비유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 혹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독특한 비유를 따라가면서 내담자

를 통해 이해를 얻는다' '비유란 매우 수승한 것이다' 하고 비유를 직접적으로 찬탄하기도 했다. '비유란 옷감에 냄새가 남아 있을 때 다른 향기를 쏘여서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경전에 나오기도 한다.

현대심리상담에서도 불교에서도 비유를 활용하지만, 불교가 훨씬 더 폭넓은 의미로 쓰고 있다. 현대 상담에서 쓰이는 문학적인 비유, 즉 은유나 직유를 비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틀론이고, 어떤 사람의 전생과 금생의 사건이나 이야기와 연결 지은 이야기인 아바다나를 비유(譬喩)라 하고, 짧은 우화인 우파마를 비유(比喩)라 한다. 이렇게 갖가지 종류의 비유를 모아 엮은 비유경이 여러 권 있다. <현유경> <백유경> <잔집백연경> <잡보장경> <법구비유경> 등이 그 예다. 국어사전에는 비유

Metaphor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염주(念珠)

염주는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생각하는 구슬'이라는 뜻이다. 불보살님께 예불할 때나 염불, 진언을 외울 때 그 횟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므로 수주(數珠)라고도 한다. 염주 한 알을 굴릴 때마다 번뇌가 끊어짐을 상징

하므로 일념으로 염주를 돌리면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해지고 죄업이 소멸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염주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다고 전한다. <불설 목환자경(佛說木患子經)>에 따르면 난국의 왕 파유리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 "무환나무 열매(木患子) 108개를 꿰어서 항상 지니고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씩 돌려서 20만 번을 채우면 백팔 번뇌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교량수공공덕경>에는 '염주에 모주(母珠)가 있는데 이 모주는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는 것'이

라며 '백팔 염주로 염불을 하면 우리 중생이 지니는 백팔 번뇌를 모두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되는 철경(지름길)이 되는 공덕이 있다'고 설한다. 염주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자거 염주, 목환자 염주, 진주 염주, 울무 염주, 보리자 염주, 시우외 염주, 구리 염주, 수정 염주, 연자 염주 등으로 나뉜다. 염주의 숫자에 따라 108염주, 1000염주, 단주(순목에 거는 7개, 16개, 21개) 등이 있다. 1080주는 상품주(上品珠), 108염주는 최승주(最勝珠), 54주를 중품주, 27주를 하품주라 한다.

김지연 기자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28차 최면 「전생요법·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
자격증 취득 가능

- 개강안내 6월 21일 10:00~17:00까지
-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 특강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발송(2시간용 총20개)

-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이프 제공
- ▶교육 참가비 : 20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 ▶특전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사증 발급 -수료후 미국최면대학 편입학 가능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극,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 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검정제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화, 알레르기, 자전치유력 활성화법 등

경이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 1544-2741